

양양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본격화

✎ 최훈 | ✎ 승인 2025.03.13 | □ 18면

군·농어촌공사 영북지사 협약



▲ 양양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탁동수 부군수와 박미란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양군 손양면에 추진하고 있는 최첨단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 군은 12일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양양군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진 이 협약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시행, 시설물 인계·인수까지 사업 전반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오는 2027년까지 손양면 학포리 일대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단지는 총 2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7.9ha 부지에 4ha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해 18~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27명에게 3년간 임대해 딸기·토마토 등을 재배하도록 지원하고 이후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게 된다.

황병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의 첨단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훈



최훈 choihoon@kado.net